

대우조선, 친환경 운반선 시장 장악

천연가스연료 LNG운반선 2척 수주 ... 셰일가스 관련 수주 유리할 듯

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 고재호)은 미국 선주와 17만3400입방미터급 2척에 대해 2016년 인도조건으로 수주계약을 맺었다고 7월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캐나다 Teekay로부터 천연가스 추진 LNG운반선 2척을 수주한 이후 세계에서 발주된 LNG운반선 4척을 모두 수주하게 됐다.

LNG운반선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생산기업인 덴마크 MAN Diesel & Turbo의 친환경 천연가스 엔진 <ME-GI Engine>과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연료 공급 장치가 함께 장착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LNG선보다 연료효율이 20% 이상 높고 디젤(Diesel)에 비해 이산화탄소나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같은 오염물질이 30% 저감돼 고효율·친환경이라는 장점이 강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천연가스 추진 LNG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함에 따라 미국 셰일가스 관련 LNG운반선 수주 프로젝트에서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선박시장에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추세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계약한 선주사와 수주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6>